KBS NEWS

분야별 ▼

시사·다큐▼

뉴스코너 ▼

지역뉴스

Q

시설 피해 :주택 367채(경북 울진 284, 강원 동해 69 등),기타 271개소 등 638개소

🌁 재난포털

ON AIR *

주춤해진 성장률…4% 목표 달성 불투명

입력 2021.10.26 (21:17) | 수정 2021.10.26 (22:03)

 \Diamond < 뉴스 9











좁아지는 대출문…'능력만큼 대

[앵커]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면서 성장률이 2분기의 절반도 못되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연간 성장률 4%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3분기가 시작된 7월 초부터, 수도권에 있는 PC방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업주들은 여름방학 성수기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이진효/PC방 업주: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일매출의 60~70%가 나오는 시점이란 말 이에요. 그런데 제한 자체가 10시면 7시부터는 손님 유입이 없어요."]

이 시각 헤드라인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이재명 47.8%, 윤석 열 48.4%, 심상정 2.5%

출구조사 '초박빙'…각당 현재 반응?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19대보 다 3%p 1

이 시각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19대보 다 3%p 1
- 2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이 47.8%, 윤 48.4%, 심 2.5%
- 3 이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 대에 못미쳐"
- 4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 로 착오로 넘어와"

이렇게 서비스업 위주로 3분기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감소하며 우리 경제 성장세를 주춤하 게 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세계적 공급망 차질 속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같은 운송장비를 사들이는 설비투자나 토목공사 같은 건설투자가 일제히 줄었습니다.

그나마 3분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수출입니다.

꾸준한 성장 속에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단 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을 종합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3%.

1분기 1.7%, 2분기 0.8%와 비교해 성장세가 주춤해진 데다 시장이 예상했던 0.6% 수준과도 차 이가 났습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 4% 달성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기대 를 걸고 있습니다.

[황상필/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2차 추경) 지원 규모는 34.9조 원 으로 지난번 규모보다 훨 씬 크기 때문에 민간소비 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 질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뉴스 9 전체보

기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검게 타 버린 '송이버섯' 주산지…올가을 '금송이' 될까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지역뉴스

목포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